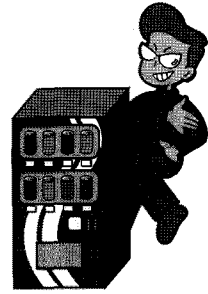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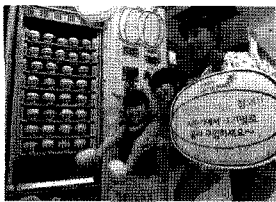


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으로



참외, 자판기서 뽐아먹자



롯데마트는 지난 8월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월드점에서 성주산 참외를 구매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선보였다. 참외 자판기는 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냉장기능을 갖췄고, 참외 크기도 선택 가능하다. 참외 가격은 크기에 따라 개당 500원에서 1천원이다.

용산역에 가면 콘텐츠자판기 이용이 '공짜'

코레일유통, 역 건물 내 '트레인샵' 매장에 음악·영화·전자책 등 다운로드할 수 있어



서울 용산역에 가면 콘텐츠자판기를 무료로 쓸 수 있다. 코레일유통은 자동판매기로 영화, 음악, 전자책(E-BOOK) 등의 콘텐츠를 휴대폰, PMP, MP3에 다운받아 즐길 수 있는 '콘텐츠자판기'를 서울 용산역 맞이방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콘텐츠자판기는 온라인웹사이트와 콘텐츠자판기, 모바일포털이 서로 통합된 데이터 베이스(DB)시스템을 통해 연동돼 하나의 소스를 여러 디바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 자판기는 지난 5월 열렸던 '월드 IT쇼 2010'에서

'IT 융합형 비즈니스모델'로 언론과 일반인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코레일유통은 콘텐츠자판기에 위치기반서비스를 추가해 여행자들이 여행정보, 길안내, 여행 중 쇼핑과 배송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늘릴 계획이다. 코레일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뒤 기차역을 중심으로 콘텐츠자판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군, 쌀 즉석 도정 자판기 시범운영



전남 강진군은 친환경 유기농 쌀을 즉석에서 도정, 공급하는 자판기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진읍 서성리 대형 음식점 옆에 설치된 이 즉석 자판기는 소비자들이 돈을 넣으면 쌀이 곧

바로 찜어서 나온다.

이 자판기는 폭 2m, 길이 4m, 높이 2.5m 크기로 현미와 백미 도정, 냉방기, 쌀 배출구 등을 갖췄으며 소비자 입맛에 맞춰 현미, 5분도, 7분도, 9분도 등 다양하게 찜을 수 있다.

시간당 100kg을 도정할 수 있으며 3.3kg(1만원)을 찜는데 2분 이면 충분하다.

특히 소포장으로 판매, 시중 가격보다 15% 정도 저렴하고 나락을 빨리 순환할 수 있어 신선도가 좋은 점도 장점이다.

군은 핵가족이 늘고 미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즉석에서 소포장 쌀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자판기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쌀 판매촉진과 함께 소비자에게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강진 쌀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대도시 아파트 단지 등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장품도 자판기에서 뽑아 쓰세요”

LG생건, 국민대에 첫 설치



LG생활건강은 국내 최초로 화장품 자동판매기 사업을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화장품 자판기 사업이 신규사업 아이

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더페이스샵은 최근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복지관에 화장품 자판기를 처음 설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 시흥동의 LG유플러스(옛 통합LG텔레콤) 사옥에 2호기를 설치한다. 연말까지 전국 대학과 호텔, 상가 등지에 5개의 자판기를 더 놓을 예정이다.

자판기에서 파는 제품은 더페이스샵의 스킨케어와 색조 화장품, 클렌징, 팩류 등 30여종이다. 소비자들은 자판기에서 원하는 제품을 골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현금으로는 살 수 없다.

LG생활건강은 최근 인수한 자회사 코카콜라음료를 통해 화장품 자판기 사업의 각종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화장품 자판기 사업은 미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화장품 유통업체 세포라는 지난해부터 백화점 JC제니를 비롯한 20여곳에서 화장품 자판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자판기 천국 일본에서도 화장품 자판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더페이스샵 유통기획부문 조영한 부문장은 “화장품 자판기가 새로운 유통 수단으로 자리잡으면 포화상태로 접어든 브랜드 중심의 국내 화장품 시장을 더욱 확

대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거야” 교회 자판기만 골라 털어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7월16일 교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만 골라 수십 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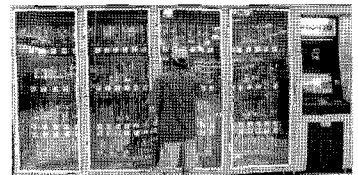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월 12일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의 한 교회 커피 자동판매기 잠금장치를 부수고 현금 2만원을 훔치는 등, 청주시내 교회 30여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교회 자판기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에서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이라 돈을 가져가도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소비자 위해 와인자판기 슈퍼마켓에 설치

펜실베이니아 주(州)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와인 자동판매기를 슈퍼마켓에 설치하고 시험운영에 들어갔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소비자들은 자판기의 터치 스크린을 눌러 와인을 선택한 뒤 운전면허증 인식기 대기-음주측정기 불기-감시카메라 응시 등의 본인 및 음주 여부 확인절차를 거친다.

전 과정이 20초 안에 끝난다.

펜실베이니아 주류통제위원회(LCB)는 슈퍼마켓 2군데의 시험운영이 성공적인 경우 와인 자판기 설치를 100군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시험운영 후에는 1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현재 이 자판기에는 가장 잘 팔리는 와인들이 진열돼

있는데 LCB는 시험운영 후 재평가를 통해 와인 종류를 바꿀 예정이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주정부 소유의 전문점에서만 가정용 와인과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주류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맥주의 경우 민간 유통업자들은 작은 나무통(keg) 단위로 팔고, 허가를 받은 전문점은 1인당 최대 6캔들이 세트 2개(12캔)를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주류법 개정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주류 거래로 이익을 얻는 특수이익단체들에 의해 무산됐다.

와인 자판기는 심플 브랜드라는 회사가 스크린 모니터에 광고를 실는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했다. 와인 자판기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패트릭 스테이플턴 LCB 위원장은 오늘날처럼 바쁜 사회에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심플 브랜드의 짐 레서 사장은 와인전문가를 위한 게 아니라 스테이크와 해산물 요리와 함께 와인을 마시길 원하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 최대 주류 도매협회 WSWA의 크레이그 울프 회장은 신분 등의 확인 및 보안 조치들이 되레 와인 구매를 꺼리게 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필라델피아 와인스쿨의 케이스 윌러스 회장은 자판기를 통한 구매과정이 번거로운데다 펜실베이니아의 와인 소비자들이 미성년자 음주를 묵인하는 사람들이라는 최악의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는 좋지만 실패작'이라고 평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맥주 자판기가 운영되고 있다.

웃어야 작동하는 아이스크림자판기

유럽의 한 아이스크림 회사가 세계 최초로 웃어야 작동하는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선보여 화제다. 얼굴 인식 기능을 갖춘 자판기의 스크린은, 사람의 연령 성별 감정 등을 판별하고 얼마나 활짝 웃는지 평가한다. 미소 수준이 합격선을 넘어야 아이스크림이 주어진다.



이용자가 터치스크린으로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웃는 사진은 페이스북에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업로드되어 공유된다. 어린 시절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큰 행복을 주었고 밝은 미소를 짓게 했다. 달콤한 행복감을 되살려 줄 이 자판기는 지난달 5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록 페스티벌 '록 인 리오'에서 첫 공개되었다. 세계 각지에 소개 및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탄산음료 SF 자판기서 못판다

설탕 포함된 스포츠 음료판매도 금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청소년 비만을 막기 위해 시내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코카콜라, 펩시, 환타 등 탄산음료와 설탕이 포함된 스포츠음료의 판매를 금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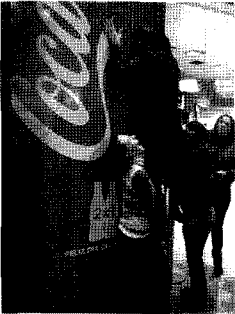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 개빈 뉴섬 시장은 지난 4월 탄산음료와 스포츠 음료의 자판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시행이 늦춰져 이제야 시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판기에서 판매될 수 있는 음료는 100% 과일음료나 두유나 우유같은 달지 않은 식물성 음료 등이다. 다이어트 콜라는 자판기에서 판매가 가능하지만 25%이하로 제한된다.

개빈 뉴섬 시장은 현재 미셸 오바마가 추진 중인 청소년 비만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UCLA는 하루에 적어도 1개 이상의 탄산음료를 마시는 성인이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비만률이 27% 높고, 어린이 41%, 청소년 62%가 적어도 하루에 1개 이상의 탄산음료를 마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토니 대변인은 "여전히 사람들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탄산음료를 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는 건강과 비만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정책이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을 희망했다.

'우정의 날' 기념, 초대형 음료자판기 등장



신장 2미터가 훌쩍 넘는 거인들이 아니고서는 동전을 넣을 수 없는 초대형 콜라 자판기가 등장했다. 보통 자판기의 두 배가 되는 이 자판기가 거인 전용인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오길비는 '우정의 날'을 기념해 초대형 자판기를 만들었다. 친구들이 힘들여 들어주지 않으면 음료 구입이 불가능하다. 친구 없는 고집불통 외톨이는 사 용 불가인 것이다. 우정을 물리적으로 확인하고, 친구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들 자판기라 할 수 있겠다.



일본 니이가타 현, 사케 자판기

니이가타현의 일본 3대 사케 명산지 중 하나로 유명하다. 술 전시관 '폰슈칸'에 들어서면 사람들 눈길, 발길 붙잡는 것이 있다. 바로 니이가타의 명물, 사케 자판기다. 니이가타의 96개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술을 맛볼 수 있는 자동판매기다.우리 돈으로 6,500원만 내면 술잔 1개와 코인 5개를 내준다. 원하는 사케를 골라 술잔을 올려놓고 전용 코인을 넣어 노란 버튼을 누르면 최고급 니이가타 사케가 술잔 가득 채워진다. 5가지 사케를 내 마음대로 골라 마시는 재미가 있는 곳이다.

특히나 소금은 사케와 궁합이 잘 맞는 최고의 안주이기에 사케 자판기 바로 옆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소금을 가져다 놓았다. 소금을 안주 삼아 한 번에 꿀꺽 마시면 사케 맛이 더 부드럽고 술 맛을 더 살려준다고 한다.



모스크바, 캐비어 자동판매기 인기몰이

음료수 자판기, 캔디 자판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오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만 찾을 수 있는 자판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캐비어(소금에 절인 철갑상어, 연어등의 알) 자판기.

뉴욕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어느 음료 자판기와 똑같이 생긴 이 캐비어 자판기는 모스크바 시장 사무실에도 설치되어있다고 한다.

행정기구 사무실 또는 모스크바 내 부자 동네에 다른 서른 세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따라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 자판기에는 빨간 연어알이 담긴 통조림과 병이 진열되어 있으며, 가격은 크기에 따라 5달러에서 21달러(6천원~2만7천원)에 이른다.

캐비어 원산지로 유명한 러시아의 국민들은 자동판매기 속의 신선한 메뉴에 대해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다. 이 때문인지 벌써 시장 사무실의 자판기는 고장이 났다고 한다.